

<바다복원 사례조사 및 논리개발>

요약

- 본 연구는 유휴 간척지에 대한 바다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내·외 사례와 게임이론을 통하여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살펴보았음.
 - 간척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담수호 수질오염 등의 해양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간척지의 경제적 대안
 -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자원으로 활용가능
 - 장기적 관점에서 갯벌복원이 국가적 이익에 부합
 - 장기적 관점에서 유휴 간척지 관리에 대한 비용절감의 대안

- 간척지에 대한 바다복원과 해수유통은 해수차단으로 발생하는 해양환경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음. 그리고 여러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어업자원,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경제활동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도 있음. 또한, 정책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부 유휴 간척지에 대한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해수유통을 통한 바다복원이 더욱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간척지에 대한 바다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간척지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대한 보상과 생계대책, 그리고 토지매입에 따른 비용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또, 복원된 바다(갯벌)이 대부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충분한 수요조사와 입지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바다복원 대상지로는 솔리천, 판교천, 상황천, 초대천을 선정하였음. 이 중, 솔리천과 판교천은 철새탐방지로 활용하고, 초대천은 뛰어난 해안경관을 바탕으로 생태관광명소로 활용하며, 상황천은 특화된 갯벌어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음.